

경기남·동남 경기남지방회로 통합

지방회 통합 감사예배



회장 김남수 목사

경기남지방회와 경기동남지방회가 지난 8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산13 헬몬산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통합감사예배를 드리고 경기남지방회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날 예배는 김남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동숙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모중창단의 특송, 교단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시 133:1 말씀을 본문으로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지방회가 하나되는



설교 유봉수 목사, 축사 정석현 목사, 권면 김기인 목사, 대표기도 신동숙 목사, 축도 이규호 목사, 광고 총무 박종철 목사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냈다고 전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축하한 뒤 회원들을 축복했다. 설교 후 회원들은 양 지방회의 통합을 감사드리며 합심하여 한마음되어 뜨겁게 기도했다. 이어 정석현 목사의 축사, 김기인 목사의 권면이 있었으며 정세창 목사의 헌금기도, 박종철 목사의 광고 후에 통합된 경기남지방회 임원진에게 인사했다. 이규호 목사의 축도로 통합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통합된 경기남지방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남수 목사 △부회장 김기인 목사, 김남순 목사 △총무 박종철 목사 △서기 김효신 목사 △재무 최정음 목사 △회계 정미자 목사 한편 통합감사예배가 드려진 헬몬산교회(담임 김남수 목사)는 성전의 기본 철골 공사는 되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마감작업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여서 성전완공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0102415-2062



기독교교육학, 오순절 조직신학, 교단 정체성 전수

2015년도 하반기 계절학기



임종달 목사

2015년도 하반기 계절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7일(월) 오후 2시 총회 신학원 3층 강의실에서 드려져 겨울철 학구열에 불타는 목회대학원생들이 모여 교단 중진 목회자로부터 집중적인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5일간 열린 이번 계절 학기를 앞두고 먼저 드려진 이날 예배는 교단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목대원 교수 조선남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 목회대학원장 임종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유 1:20-21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중심으로 패역을 쫓는 부리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신학생들을 축복했다. 이어 임종달 목

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개강예배 후 원장 임종달 목사의 기독교교육학 강의, 최병진 목사의 성막의 역할, 김바울 목사의 구속사적 설교 신학, 정운기 목사의 이단론, 조선남 목사의 전도학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3~17)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압니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탄생의 날을 기뻐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름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고민하던 때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 1:20,21)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독생자’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셋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셨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다.” (마 1:22,23)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2천 년 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들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시며, 종말에는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영원히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넷째, ‘구주(救主)’라는 이름입니다. ‘구주’라는 명칭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주요 개념은 죄로부터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적인 징벌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과 죄후 심판의 면제뿐 아니라 영생과 천국에 참여하는 특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는 ‘기름부어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에게 유일한 구속자이시며 종보자로서의 임무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임무를 완전하게 행하였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영원히 단번에 구속사역을 이루셨으며, 만물의 왕으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섯째로, ‘주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주리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요 1:1~3)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시기 전의 성자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이를 믿고 고백하며 전파하는 사람들은 정령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가진 의미로 인하여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홈페이지 : www.ucts.org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여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입생 (신학과)	일반학력 3년 6학기	1. 만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대졸(전문대) 2년 4학기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편입생		1.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2. 타 신학교의 수강 경력을 인정받고 싶은 분은 상담 후 학년 결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5.12.21.(월) ~ 2016.02.18(목)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068~8703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주민등록증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내)-신입생
-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5.12.21.(월) ~ 2016.02.18(목)
- 서류심사 및 면접 : 2016. 02. 18(목)
- 합 격 자 발 표 : 2016. 02. 19(금)-개별통보
- 전 형 료 : 20,000원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8 (여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졸업 후 교단 전도사 임명 자격 부여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총회목대원 졸업 후 목사고시 응시 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068~8703, FAX 02)711~9958

한교연 정총, 대표회장예 조일래 목사 선출

한국교회 힘 응집 위한 ‘한국사회발전연구소’ 설립 결의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11일(금)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38개 회원교단과 11개 회원단체에서 파송한 총회대의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 대표회장예 단독임후보한 조일래 목사(기성 증경총회장)를 선출하는 한편 새 회기 임원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을 임명했다.

또한 종교인과세 적극 반대 및 동성애 악법 저지, 이슬람 할랄식품 반대 등을 위해 총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사회발전연구소를 설립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힘을 응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1부 개회예배는 송덕천 목사(예성 총회장)의 사회로 안만길 목사(합신 총회장)의 기도과 이창연 장로(회계)의 성경봉독, 박위근 목사(증경 대표회장)의 ‘예벤아셀’ 제목의 설교에 이어 김요셉 목사(초대 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회무처리에는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의 사회로 개회패 한 회기동안 특별히 수고한 임원(서기 이태윤 목사)과 상임위원장(임은빈 목사, 홍기숙 장로, 하혜숙 권사, 이동석 목사) 특별위원장(하태선 목사) 등 7명에게 공로패, 한국교회 10대 대사회 긴급현안 대책에 후원 헌금으로 동참해 준 회광교회(윤호균 목사) 등 10개 교회에 감사패, 동성애 대책을 비롯해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한 박종연 목사, 박명수 교수, 전영태 변호사, 이영희 교수 등 4명에 대한 특별공로상, 일선경찰 3명(송영호 경정, 이진수 경위, 박준수 경위)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이어 새 회원교단으로 기감 성회총회(총회장 김광옥 목사)를 승인했다. 또한 총회에 임박해 기입을 요청해 기입실사위원회 실사를 마친 예장보수총회(총회장 정동환 목사)는 준회원교단으로 받아 5회기에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회원교단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는 2015년도 경과보고와 결산 보고를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영훈 목사) 주관 하에 대표회장 선거에 들어가 단독 입후보한 조일래 목사(기성 증경총회장)를 총회대의원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했다.

이어진 대표회장 이취임식에서는 양병희 대표회장의 이임인사, 신임 조일래 대표회장의 서약에 이어 양병희 대표회장이 한교연 기발과 의사봉, 인정함을 신임 조일래 대표회장에게 인계했다.

조일래 대표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새 회기 임원으로 서기 이영주 목사(예장대신) 부서기 이명선 목사(기성) 회계 최내화 장로(예장통합) 부회계 이은복 장로(예성) 감사 박창우 장로(대신) 고영만 장로(기성)를 임명하고 공동회장 부회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해 차기 임원회에서 임명하기로 결의했다.

총회는 제5회 총회 총회선언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성역 55주년 축하예배 ... 권오덕 목사

“남은 일생 사명자 양성에 헌신하겠다”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중흥을 이끌어 온 권오덕 목사(갈보리교회)가 성역 55주년을 맞아 ‘성역 55주년 기념 축하예배 및 성령충만운동을 위한 찬양콘서트’를 지난 5일 오전 도화관에서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영식 목사(부른초성교회)의 사회로 백요한 목사(예성교회)의 기도예에 이어 이선 목사(대기총 이사장)의 ‘전후후한 하 나님’이란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축하식은 권 목사의 지난 목회 인생을 옆에서 지켜본 교계 인사들이 나서

권 목사의 성역의 성역 55주년을 평가하고, 이를 축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축하식에서는 유대식 목사(대신 증경총회장), 김무기 목사(대기총 상임회장), 나건용 목사(개혁신학원 원장), 강준오 목사(한국기독교언론진흥회 회장) 등이 축사, 권영일 목사(큰루터제자교회)가 격려사를 전했다.

강준오 목사는 “55년이라는 결코 긴 시간을 달려 오셨다. 권 목사님은 지난 시간 온갖 고난을 이겨내 훌륭한 분이시다”며 “일생을 예수그리스도의 양을 키우고 먹이는데 헌신

해온 권 목사님의 목회를 존경한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며, 나중에 큰 칭찬을 받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제3부 찬양식은 문제선 목사(사명자 총회장)의 찬양시를 시작으로, 공로패 증정과 감사패 증정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예장교단 교역자 대표 이명희 목사, 갈보리영성훈련원 대표 이명자 목사, 갈보리교회 대표 양미남 전도사 등이 각 단체 대표로 나서 권 목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권오덕 목사는 감사의 인사를 통해 이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는 은혜와 축복마저 물질적인 축복으로 인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며 “한국교회도 영원된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오덕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프린스턴대학교를 수료하고 유니온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사)대기총 대표회장, 갈보리영성훈련원 원장, 대한감리회신학원 학장, 예수교 대한감리회 감독, 갈보리교회 담임으로 재직 중에 있다. 저서로는 하나님의 사람, 세별산 운동 등 14권의 저서가 있다.

군종목사단장에 해군 대령 황성준 목사 취임

“복음 통한 장병들의 변화와 병영문화 혁신” 밝혀

지난 6일 오후 7시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제24대 한국군종목사단장으로 해군대령 황성준 목사가 취임했다.

황 목사는 “각 교단별로 나누어져 있는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되어 함께 하는 사역이 바로 군선교이며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군선교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인 신자 세례 및 군인교회 정착, 군인교회 예배 활성화, 연부대교회 건축을 비롯한 나후된 교회 시설 정비, 군복음화의 뿌리가 되는 대대급 교회 활성화대책 등을 언급했다.

이날 취임감사예배에서는 예정활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설교, 육군참모총장이며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 회장인 대장 장준규 장로가 축사, 합동총회 김창수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또 한국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이학수 목사가 100여개의 진중교회와 280명의 육해공군 군종목사, 650여 명의 군지위 민간 성직자들을 댐 앞에서 잘 섬기라는 의미로 지휘봉을 전달했다.

이날 취임한 황성준 목사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종신대학교 목회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신학박사학위도 취득했다.

1996년 해군대위로 군종목사 사역을 시작하여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병대사령부, 국방부 등을 거쳤으며, 올해 대령으로 진급하여 내년 해군 군종병과장을 맡을 예정이다.

“사랑의 김치 드시고 건강하세요”

원로목회자에게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지난 1일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원로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김치 드시고 건강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원로 목회자 및 실무자 100명에게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을 가졌다.

임원순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이사장)는 “원로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원로 목사님들이 이 김치를 드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은수 감독(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총재)은 “추운 겨울 한뼘생을 헌신하신 원로목회자분들에게 김장김치 전달로 추운 날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보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태 장로(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대표회장)는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신 원로목회자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다. 앞으로도 원로목회자분들을 섬기고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진옥 목사(서울지구총교회 담임목사)는 “지원봉사자로 참여해 준 서울지구총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원로목회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신원옥 대표(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운영위원장)는 “이번 행사는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추 농가를 돕고, 연말연시에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목회자분들을 지원하는 1석 2조의 사회 공헌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정임영 원로목사(성남·사렛교회)는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임원순 이사장과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전달받은 이 김장김치는 김치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더욱더 분발하여 기도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레교회 사태 극적 타결 ... ‘분립’에 합의

민·형사 소송 취하키로, 이문장 목사측과 두바협측 합의사항 발표

이문장 목사 측과 그 반대 측인 두바협(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은 지난 12월 4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예장 통합 평양노회(노회장 정창만 목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목사 측 박영호 장로와 두바협 측 이영련 장로가 함께 발표한 이 합의사항은 △노회 허락 하에 두 개 교회로 분립한다 △상호 간 교회법과 국가법의 민·형사상 소를 취하해 회해를 실천한다 △교인들은 자의적으로 두 교회 중하나를 선택한다 △‘두레교회’라는 이름은 이문장 목사 측이 사용한다 △이 목사 측이 두바협 측 교회 설립을 지원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양측은 “총회 헌법을 준수하고 노회나 교단 탈퇴 등 어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고 형제 교회로 존속한다”며 “상호 분규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게시물과 유인물 등을 모두 삭제·폐기하도록 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상호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문장 목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에 염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총회와 노회를 잘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앞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했다.

양측 합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노회장 정창만 목사는 “100주년 총회의 표어인 ‘회회하는 총회’에 맞는 합의를 한 데 대해 양측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손달익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의 기도로 마쳤다.

한목협,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성탄예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함께 나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원 목사)는 지난 15일(목) 낮 12시 천안드림학교(천안시 동남구 삼동동 40)에서 탈북(무연고) 청소년들과 함께 2015 성탄예배를 드렸다.

한목협 운영위원 및 소속 15개 교단 목회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예배는 드림학교 학생들의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특별찬양, 한인선 목사의 ‘참 좋은 친구 예수’(요15:13-15)란 제목의 성탄메시지 성탄 선물 전달, 성령부 낭독 순으로 드려졌다. 이어진 2부 작은음악회는 서원교회 씨엘중앙

단, 이승한 목사 등이 공연했다.

김경원 목사는 “현재 재학생 중 10% 정도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국적이 없는 무연고 상태의 학생들도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할 수 있는 대로 탈북민 자녀들과, 홀로 탈북한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을 돕는 기회를 금번 성탄에 가지려고 했다”고 이번 성탄예배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목협은 1998년 강남구 구룡마을 판자촌 주민들과 성탄예배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매년 조선족동포, 외국인노동자, 노숙인, 탈북이주민, 태동교회 수제민, 청소년 대안가정, 모자가정, 노숙인, 지역아동센터아동, 쪽방촌 주민, 화귀·난치병 어린이, 교도소 재소자 등 소외된 이들과 함께 성탄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해방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 어느 때 보다 남북통일이 중시 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먼저 대한민국에 미리 다가온 통일의 전령인 탈북민들 가운데 탈북(무연고) 청소년들과 함께 2015년 탈북(무연고)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성탄예배’를 드렸다.

한편 천안드림학교는 날로 증가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정착을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2003년에 설립된 대한학교이다. 드림학교는 지난 12년 동안 전국각지의 교회들과 개인후원자, 정부의 도움과 사랑과 열정으로 거느린 교사,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들의 헌신으로 현재까지 탈북청소년 300여 명을 배출했다.

예수교대한웨슬레회 제32차 정총

국내외 선교강화 및 교회 확장에 주력

예수교대한웨슬레회(총회장 정동석 목사)는 지난 3일(목) 왕십리 소재 삼성교회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정동석 목사를 재선출하는 등 32회기를 이끌어갈 임원을 개선했다. 총회는 또 교회설립을 통한 국내 선교, 세계웨슬레회 교단과 연계를 통한 국외선교에도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부총회장 서영민 목사 사회로 추무 오도경 목사의 기

도, 서영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서영민 목사는 성경 막 6:41-44을 본문으로 한 ‘오병이여의 이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의 시대는 말씀의 기갈시대이자 마지막 시대로 주님 오심을 알려주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에 비록 작은 교단이지만 복음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직분을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무처리시간은 대의원 점명, 개

회선언, 각부보고(유인물 대체)에 이어 투개표위원을 선정하고 임원선출에 들어가 △총회장 정동석 목사 △부총회장 오도경 목사 △총무 서영민 목사 △서기 최창무 △회계과 회계 △교육부장 허금음 △전도부장 윤용만 △봉사부장 박남숙 △평신도위원 배신규 등을 선출했다.

이밖에도 이번 총회는 제32회기 사업으로 국내외 선교확대를 통한 교회 확장과 연합교회 개회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순복음갈릴리교회 목사·안수집사·권사임직예배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명점 목사)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 목사,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가 지난달 28일(토) 오전 11시 유봉수 목사, 정기영 목사, 박용호 목사, 고영권 목사가 안수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동교회 대성전에서 드려져, 정갑호 전도사가 목사, 전영기 집사가 안수집사, 조순련 집사가 권사로로 각각 임직되었다.

이날 예배는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박용호 목사(순복음오일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 목사는 살전 2:4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전환 부활을 받은 자'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명자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으로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다"면서 "복음전환 부활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야 하며, 진실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며,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목사 임직식은 지방회장 한명점 목사(은혜와

평화교회), 안수집사와 권사임직은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 담임)의 집례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이어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가 권면, 홍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가 축사를 전했으며, 유봉수 목사(은혜와 사랑의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송년월례회, 오직 기도와 순종의 삶 살아야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명점 목사)는 지난 7일(월) 오전 11시 순복음복있는교회(담임 황연선 목사)에서 12월 송년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 윤해원 목사(순복음주안미교회)의 기도,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된교회)의 성경봉독, 여목부의 특송, 홍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설교 강광수 목사의 헌금기도,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헌금송, 유봉수 목사(은혜와 사랑의교회)의 축도로 드러졌다.

홍 목사는 행 2:14-17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을 증언하는 일에 전진해야 하며, 성령의 인



도를 따르는 길을 가야하며, 오직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배 후 지방회장 한명점 목사의 주재로 월례회를 개최, 지방회 각종 현안들을 처리한 가운데 순복음화평교회(담임 신복희 목

사)의 부교역자 2명(김영옥 전도사, 박정애 전도사)이 기입인사를 했다. 이후 기념촬영과 순복음복있는교회(황연선 목사)에서 준비한 월남쌈사바사로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월례회, 동성에 반대와 교단 발전 위해 기도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김영식 목사)는 지난 7일(월) 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담임 김갑진 목사)에서 12월 월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찬식 목사(송곡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배영환 목사(전원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순복음장선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52:1-9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악의 잔학함과 악인의 운명'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의인을 신원하시고 악인에게 공의의 보응을 하실 것을 의심치 않았던 다윗의 신앙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수용하여서 바로 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에 반대, 교단



발전과 지방회와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 목회자와 사모들의 성령충만과 건강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증경지방회장 최형택 목사(영양순복음교회)의 축복기도와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의 주재로 총무 정찬식 목사의 총무보고,

회계 서은자 목사의 회계보고 등 각종 보고를 받고 기타 회부를 처리했다.

이어서 바다가 보이는 풍광이 멋진 곳으로 장소를 옮겨 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가 제공한 오찬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는 등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2학기 종강예배...훈련과 연단은 목회사역 자양분

광주신학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광주신학교(이사장 주덕영 목사, 학장 김임복 목사) 2015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가 지난달 30일(월) 오후 4시 순복음광주신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종강예배는 장영기 목사의 사회, 정찬식 목사의 기도에서 이어 학장 김임복 목사가 시 120:1-7 말씀을 본문으로 '시편 120편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악인들이 거짓된 입술과 꾀사한 혀로 허위와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잘되도록 하



도할 것"을 권면한 후 한 학기동안 받은 훈련과 연단은 목회사역에 필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어 최정식 목사의 헌금기도와 이사장

주덕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행복한 만찬의 식탁교제 통해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수고한 교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년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 소망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정수 목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지방회 송년회를 안산 새중앙교회 대부도수양관에서 가졌다.

충북지방회원들은 8일(화) 오전 10시에 순복음아멘교회를 출발, 대부도수양관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에 숙소 및 주변을 둘러보았으며, 저녁식사는 화와 매운탕으로 만찬을 즐긴 후에 송년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직전 지방회장 이동수 목사(한희순복음교회)의 사회, 부회장 최동순 목사(삼신순복음교회)의 기도, 증경회장 이복근 목사(이복순복음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창 42:1-8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꿈을 가진 요셉을 고난이라는 훈련과정을 통해 애굽의 총리로 세워 형제들과 회회를 이루고 가족과 애굽을 살리는 동



시에 이스라엘 지손들을 번성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회의 정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소망했다.

이어 교단과 지방회 및 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증경회장 윤경현 목사(은

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 윗놀이와 다과를 즐기며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은 아침 식사 후에 남자들은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며 즐거운 단합을 다졌고, 여자들은 숙소에서 모여 간증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낸 뒤에 수양관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하며 송년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교단가입 및 성전이전 감사예배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임영광 목사) 순복음성령사역교회(담임 이재선 목사)는 지난 12월 6일(주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의정부시 가농동 723번지 정밀당 6층으로 성전을 이전하여 교단가입 및 성전이전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단 가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교단과 지방회와 주의 일에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은구 목사(순복음신한목자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정광호 목사(동문순복음교회)의 기도, 회계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의 성경봉독(창6:2)에 이어 지방회장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회원들을 축복했다.

증경회장 엄하석 목사(주성교회)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



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했으며 순복음성령사역교회 담임 이재선 목사는 주님의 은혜로 성전을 이전하고 성령과 진리를 수호하는 교단에 가입하게 됨을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전하고 이어 재무 전하세 목사(열린축복

교회)의 헌금기도 후 지방회장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교회)는 교단헌법에 의거하여 순복음성령사역교회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지방회 소속교회가 되었음을 공포하고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송년예배...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

안산시흥지방회

안산시흥지방회(회장 김영학 목사)는 지난 10일(목) 오전 11시 산성순복음교회(담임 이규아 목사)에서 송년예배를 드리고 한 해 동안 복음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온 회원들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한해 더욱 알찬 한 해로 가꾸어 가기 위해 마음을 각오를 다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영웅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장 김영학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딤후 4:7-8 말씀을 본문으로 '최후 승리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최후에 승리가 된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살기



위해서 남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도록 힘쓸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 총무 김영웅 목사의 인도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산하 교회에의 부흥을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 후에는 회원 모두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돌베개교회 창립, 좋은교회 되기를 ...

서울강남지방회

서울강남지방회(회장 김종열 목사)는 지난 7일(월)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세워진 돌베개교회(담임 이성호 목사) 창립예배를 드리고 예배예전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에는 지방회 총무 우성현 목사(은혜로교회)의 사회, 재무회계 박명규 목사(민음과소망교회)의 기도, 김홍재 안수집사의 특송, 회장 김종열 목사(침사광교회)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회장 김종열 목사는 '거기서 만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나와 임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라고 전하면서 창립하는 교회가 이시대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했다. 이어서 지방회장 김종열 목사가 창립 및 담임목사 취



임을 공포하고 부회장 정윤기 목사(순복음기락교회)의 권면과 축사, 이성호 목사의 취임 인사 및 광고, 지방회장 김종열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담임 이성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이며 앞으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 생명의 말씀 ■



김순자 목사

· 서울중부지방회장
· 회복의교회 담임

고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중세를 거쳐 계몽시대 곧 근대역사로 접어들면서 더욱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편을 현실적인 생활에 전적으로 응용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서 벗어난 일은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에 비추어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고 황당무계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처럼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시기를 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언제 예언되었고, 누구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을까요?

동정녀 탄생의 예언 성취

(마 1:18-25, 사 7:14)

1. 1,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일은 전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7백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일이 장차 일어날 것임을 미리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진히 짐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우선 여기서 이사야가 그때 어떤 일로 누구에게 그런 예언을 들려주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다왕국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때마침 아람왕 르삼이 북왕국 베가와 동맹을 맺고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유다왕국을 침공하였습니다.(사 7:12)

그러자 아하스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백성의 마음은 마치 태풍에 살림이 요동치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사자 아람 왕 르삼을 아하스에게 보내어 적들은 절대로 너희를 치지 못할테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그 말을 못마땅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향하여 직접 “그렇다면 어디 내가 나에게 짐조를 구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즉시 보여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까지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그는 절망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엔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 동정녀를 통한 임마누엘 탄생 약속을 들려주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구원의 확약을 기어코 주시려 한 최후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아람과 북왕국 두 나라는 그 후 곧 멸망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왕국을 구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들려주었던 7백여 년 후에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2.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된 것은 세세 요한의 잉태와 여섯 달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녹 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여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아기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는 이런 사실을 가리켜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성취였다고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저 예언에 언급된 ‘처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마’는 결혼적령기에 이른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여 그냥 ‘여자’만을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헬라어 ‘파르테노스’의 의미는 정확히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를 가리키기 때문에 사 7:14에 사용된 ‘처녀’라는 말의 모호한 점을 완전히 제거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왕에게 ‘짐조’로써 들려주셨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타락한 후부터 구원의 참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짐조로써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것은 허황된 이야기나 우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고 치밀한 성취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진리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이야말로 영원히 가르치고 확산되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림절(겨울철의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로 한해의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미 이천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저에 말씀으로 영으로 새롭게 임재하시길 것과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 세계와 역사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마음으로 기다리며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자기 이익만 쫓기는 삶을 극복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늘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종말론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으면 천국의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계 2:10)

력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할랄 식당을 만들고, 기도처를 만든다고 부산을 떠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관광은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주목적 아닌가? 더구나 무슬림들이 많이 드나들게 되면, 치안과 안보에 구멍이 뚫릴 것은 자명하다. 그들에 의해,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북한과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만큼 큰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치중하여, 우리의 안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종교의 이름으로 전대미문의 테러 집단이 국내에서 활동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소탐대실의 큰 우를 넘어서, 국가 존립마저 위협 당하는, 불행의 문을 열어주는 대실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이슬람과의 교류나, 할랄식품 등은 대대적으로 제검되어야 하고, 공영방송인 KBS의 무책임한 방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동 정

총신대, 성인학습자 과정 개설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목사)는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사모, 평신도 등 ‘성인 학습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

한다. 총신대는 지난 11월, 기존의 평생교육원과 산업교육학부, 새롭게 준비 중인 원격평생교육원과 총회신학원을 통합하여 단과대학 형태의 사회교육대학을 신설했다.

홀트 근속위탁모 시상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대형)는 위탁모로 봉사하고 있는 오세숙(64세)씨에게 지난 8일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 열린

홀트 장기근속 위탁모 수여식에서 15년 근속상을 수여했다. 오세숙 위탁모는 1999년 12월 봉사를 시작하여 15년 동안 36명의 아동을 양육해 양양가정으로 연결해 주었다.

한장총, 파리협정 환영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백남선 목사)는 지난 12일 파리 기후변화당사국회의 합의에 따른 파리협정을 환영하며 기후변화실천활동의 확산을 선언했다. 대표회장 백남선 목사는 “이 일에 기독교계가 솔선하여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GA 선수회, 사랑의쌀 전달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이사장 이선구)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KPGA선수회가 연말을 맞아 지난 18일 서울역 인근 파퓰러 채움터에서 ‘사랑의쌀 전달식’을 가진 후 독거노인 및 노숙자들에게 직접 무료급식을 배식하는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선구 이사장은 “KPGA선수회의 사랑 나눔 실천은 불우한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공영방송 KBS, 이슬람의 실체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공영방송 KBS가 지난 5일부터 3부작에 걸쳐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라는 주제로 이슬람을 띄우고 있다. 인구 18억 명,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급속도로 성장하게 될 미래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에 대한 무지(無知)의 소치이다.

이슬람의 인구나, 경제 규모, 대부분이 산유국이며, 제3세계라는 입장에서만 보면, 분명 매력 있는,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공영방송이 이다지도, 흥분해야 할 정도로, 이슬람이 우리 경제 파트너가 되어야 할 대등인지(?), 이슬람 시장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블루오션인지(?)의문이다.

첫째, 이슬람이 가진 가장 취약한 문제

는 뭐라 해도, 배타적 폭력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KBS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도 테러집단은 무슬림의 1%에 불과하다고 변호한다. 이는 무슬림을 과소평가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두 번째는 KBS는 지난 5일(토) 1편에서 “이슬람, 종교가 아닌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방영했다. KBS의 이슬람과 할랄식품에 대한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할랄 식품이야말로 이슬람의 가장 근본주의적인 종교행태요, 의식이다. 그럼에도 아랍 국민들을 기만하려 드는가!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도축되고 가공된 식품을 말하는데, 우리에게서 이것이 ‘정미 및 산업’이 결코 아님을 각성해야 한다. 우선 할랄 도축 방식은 무슬림이

도축해야 하고, 죽을 때 짐승의 머리가 메카로 향해야 하고 동물의 혈관을 끊을 때도 ‘알라’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예리한 칼로 혈관과 기도를 단번에 끊어 온 몸의 피를 모두 빼내야 하며, 개나 돼지는 먹을 수 없다. 사실 할랄 도축은 알라에 대한 제사요, 제물이다. 이런 과정으로 인하여, 유럽 등지에서는 동물학대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여기에는 이슬람 율법인 사리아에 의한 ‘다비하’라는 종교의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슬람교를 포교하는데 기여하는 것이고, 정부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이슬람교를 포교해 주는 모양이 된다. 할랄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도축장 도살에 4인의 무슬림 종사자와 공

장인 반드시 이슬람교도인 ‘할랄 관리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무슬림 종사자들의 유입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산지 왕궁면에 조성하려는 할랄식품 클러스터 단지는 점점 무슬림들의 게토로 변할 것이고, 게토가 카치면, 사리아법 자치를 요구할 것은 자명하다. 테러의 공포에 떠는 영국을 보라.

그런가하면, ‘할랄식품’으로 인한 수입들이 이슬람 확산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슬람 기관은 ‘자카트’라는 명목으로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KBS는 제3부에서 무슬림 관광 산업을 보도할 예정인데, 단순히 관광수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상당수의 폭

홈페이지: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우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반명함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5년 12월 07일(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5년 12월 28일(월)~2016년 02월 19일(금) 17:00시까지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주소 : 우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목회대원 교학처

- ④ 서류심사 및 면접 : 2016년 02월 22일(월)
- ⑤ 합격자발표 : 2016년 02월 23일(화) 개별통보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행정실 : 02)2677-0692~3

- 원서접수 : 2015년 12월 28일(월)~2016년 02월 19일(금) 17:00시까지
- 입학상담 및 문의 ☎ 행정실 : 02)2677-0692~3

목회자의 창

이한권 목사 // 전 일본선교사

‘배반’

어느덧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되돌아보면 사 회적으로 회자되는 말이 배반과 진실함이었다. 당리 당락에 함몰되어 정작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민생 법안을 뒷전에 둔다면 그것은 배반의 정치이다. 더불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실상은 자신의 기반 강화에만 관심을 두는 것도 배반이다.

지난 6월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을 행사한 이후 배반의 정치리는 말이 한동안 회자 되었다. 배반(背叛/背叛)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신뢰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릴 때 배반의 사람이 된다. 종종 배반을 성토하는 사람이 배반자이기도 하 다.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무엇인 가. 왜 사람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할 품행이나 덕성 이 요구되는 것일까. 그렇지 못할 때 흔히 우리는 “사 람 같지 않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증거 되는 사람 장 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 시고”(창1:27)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답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 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비록 죄로 오염된 인 생들이지만 그럼에도 사람됨은 요구된다(cf 창 4:7, 9:6).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 사람됨이 요구된다(고후 5:17, 롬 12:12). 그리스 도인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삶의 방식이 믿음과 의리 에 기반해야 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성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의리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더불어 삶의 방식도 믿음과 의리에 기반해야 한 다. 서로 신뢰를 주고받으며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는 신앙인들로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를 격려

진솔하고 단정한 마음이 없이 세속의 사람처럼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배반의 마음이다.



해야 마땅하다. 머리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는 각 지체로 연합되어 머리되신 주님의 명령과 그 뜻 안에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이다(엡 4:13-16).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롯 유다는 배반의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배반자의 모습이 아니라 충성 된 사람처럼 보였었다. 사실 유다의 결말을 모르는 것으로 상정하고 생각해 보면, 주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한 말은 인상 깊다(막 14:3-5). 이 값진 향유를 한 번에 부어 하비하는 것은 잘못 이라며 호통쳤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잘 배분하여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나무랐다. 자신의 스승과 관련된 일인데도 이렇게 과감하게 말 할을 다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을 위한 신님이 확고한 사람처 럼 비쳐졌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요 12:6). 그 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고 예수님의 사역과 많은 일 에 동참하고 목격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신뢰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린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말로 입맞춤한 그의 입술은 스승을 향한 안부와 존경의 인사를 담고 있었지만 그 것은, 배반의 기호(sign)였을 따름이다(막 14:45). 사 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사랑받는 자리 에 있었지 않은가. 믿었던 사람, 사랑받던 사람의 배 반은 말 그대로 배은망덕함이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배반의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

정치인은 공약을 위해할 때 유권자를 배반하는 것이며, 기업가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 으려 할 때 노동력을 제공한 이웃을 배반하는 것이 다(cf 암 5:10-13). 신앙인이 신앙고백에 벗어나는 마음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 할 때 주의 사랑과 은혜 를 배반하는 것이며 자신의 믿음과 직분을 저지하고

격려한 공동체를 배반하는 것이다. 교단과 교회의 일 군들은 공동체의 질서와 연합을 저해하는 연행심사 를 갖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오직 주의 명령 안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신 을 주장하며 자기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때마다 대의를 빙자하여 사사건건 사비를 거는 태도 를 지양해야 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과 더불어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얼마나 바라셨을 것인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교단과 교 회를 위해 기도하며 좋은 생각을 적극적으로 나누며 성장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진솔하고 단정한 마음이 없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정치적 수사나 흉내 내며 세속 의 사람처럼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 이다. 그것은 배반의 마음이다.

미련한 사람은 작은 티끌을 빌미로 거대한 기동 을 흔들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 가볍게 볼 게나 스스로 털어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빌미로 원가를 이루려는 자들은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신뢰와 사랑의 의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마음을 넓히고 사야를 넓혀야 한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일이다. 주 안에서 믿음 과 의리를 더욱 다지는 언약과 사해가 되기를 기도 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유년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 내 가 주 여호와의 나니 파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 를 전파하리이다”(시 73:26-28)

사리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은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은 ‘공간’입니다. 나아가, 그 공감의 능력은 바로 ‘상상 의 능력’입니다. 타인의 삶을 살아볼 수는 없어도 상 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인문학이 중 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문학이 타인의 삶에 대 한 상상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을 보통 문장(文)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문학이란 인간의 삶을, 역사란 인간의 본성을, 철학이란 인간 의 생각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입니다. 그레 서 바른 공부는 반드시 타인의 이해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구나 너는?”이라는 질문 을 하기 전에 “누굴까 그는?”이라는 질문부터 스스 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겈세마네 에서 연약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마음에는 원이 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랑 가득한 공감과 속 깊은 상상력’의 전향과 모 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정기총회

바른 복음전파를 위한 헌신 다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는 지난 12월 14 일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에 양정섭 목사를 선임하는 한편 바른 복 음전파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고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더욱 깨어있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시작. 최옥석 목사의 대표기도, 박길순 목사의 성경봉독, 김권현 목사(예장 합동부흥 총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골 4:7-9 말씀을 본문으로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주의 말씀대 로 복음을 전하며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20여년을 함께 해온 본 법인 동역자들과 가임 교단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헌 목 사, 사단법인 한기협 발전을 위해 신영미 목사가 기도한 후 박형렬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 바로 회무 처리에 들어갔다.

총회는 의장 양정섭 목사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

고 20차 정기총회에 임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표이사(이사 장) 양정섭 목사, 이사 김권현 목사, 이사 노종관 목사, 이 사 박형렬 목사, 이사 강희준 목사, 이사 최옥석 목사, 이 사 임정태 목사, 이사 양형은 목사, 이사 김인호 목사, 이 사 이영춘 목사, 이사 서경숙 목사, 이사 박병원 목사, 이 사 허용준 목사, 이사 김영의 목사, 이사 전대식 목사, 감 사 조복동 목사, 감사 한성옥 목사가 선출되었다.

신 안건 토의는 신년도 사업안과 세입, 세출안을 전년 도와 같이 만장일치 통과시키고 모든 안건과 세비나 등은 이사회에 위임하고, 신년하례예배는 사단법인 한국기독 교개혁신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사단법인세계개 혁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 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로 3개 단체가 연합하 여 하기로 하고, 31절 행사는 사단법인세계개혁신교연합 회 주관으로 3개 단체가 하기로 하고, 625행사는 사단법 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주관 으로, 8.15 광복절 연합예배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 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주관하여 3개 단체가 연 합하여 모든 행사를 하고 모든 안건은 새로 선출된 임원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회무를 모두 마쳤다.



“동양대학교를 기독교 명문으로 만들자”

기독교 정신으로 실력, 인성, 신앙 겸비한 학생 양성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백산맥 줄기의 낮은 구릉지에 그림처럼 펼쳐진 동양대학교(총장 최성해 목사·우측사 진)가 있다. 이 대학은 1994년 3월 개교한 이래로, “공무원 시관학교”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해 왔다.

특히 지방 대학들이 학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으나, 이 대학만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특성과 대학 으로 입학 지원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더군다나 소도 시의 읍 소재지에 있는 대학이 올해 대학 평가에서 B등급 을 받을 정도로, 내실 있는 대학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는 총장 최성해 목사의 특별한 교육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대학의 장점은 ‘전문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일례로 지난 2004년 <공무원시관학교>로 출범한 이후 2015년 6월 까지 각 분야(공무원, 경찰, 소방, 군무원, 공기업 등에서 43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한데서도 그 역량을 짐작할 수 있 다. 또 이 학교는 학과 개설에서도 불로요선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소방행정학과를 비롯하여, 문화재발굴보

존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철 도경영/철도운전제어/철도차 량/철도건설안전공학/철도전 기융합학과가 있다. 또 국방 과학기술대학이 있고, 공공행 정/공공안전공학/IT융합/테 크노공직연계/공간디자인/리 밌디자인학과가 있고, 연출제 작전공학과 등 타 대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실용적인 학과들이 즐비하다.

오늘날 한국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들이 많 이 있지만, 기독교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학교를 찾아보 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2016년 신입 생 모집에 많은 인재들을 보내, 동양대학교 학생들을 기 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실력, 인성, 신앙을 겸비한 학생들 로 키워가는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최성해 총장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우리나라 사립대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온선 칼럼

문찬우 목사 // 청담온선교회 담임,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 A.), 호서대 신학박사 (Th. D)

공감과 상상 (마 26:41)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에 빛나는 박찬욱 감독 의 영화 ‘올드보이’에 나오는 “누구나 너는?”이라 는 짧은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질문 에 대한 대답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대 로 말하자면, 그 ‘너’라는 사람은 질문자의 오랜 동 장이기도 하고, 그의 원수이기도 하며, 친숙한 테러 리스트요, 동시에 상처받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 대해 단언(斷 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 사람의 삶을 규정하고, 한 마디로 처리해 버리려는 성급하고 거만한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멋진 사람도 되고 싶어하고, 좋

은 사람도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뜻대 로’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먹고 사는 것조차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장발장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지난한 삶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거룩하고 높은 이상은 오간데 없고 마음 구석에 동 물적 하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에 대해 놀라곤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은 중간자적(中間자의) 존재입니다. 세속과 영성, 빛과 어두움, 이해와 무지, 꿈과 절망 등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삽니 다. 피스카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Gesau pensant)라 부른 것은 결국 ‘한 사람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 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 인생에는 교통사고처럼 다가오는 불가항력적 문제들까지 도

홈페이지 : www. agtc.co.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주·야간)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 커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 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입생 (신학과)	4년 8학기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 을 인정받은 자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영합판 사진 4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5년 12월 07일(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5년 12월 28일(월)~2016년 02월 19일(금) 17:00시까지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주소 : 우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총회신학교)
- ④ 필기시험 및 면접 : 2016년 02월 22일(월), 총회신학교
- ⑤ 합격자발표 : 2016년 02월 23일(화), 개별통보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 자격이 부여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총회목회대학원 졸업 후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행정실 : 02)2677-0692~3

- 원서접수 : 2015년 12월 28일(월)~2016년 02월 19일(금) 17:00시까지
- 입학상담 및 문의 ☎ 행정실 : 02)2677-0692~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서울서부지방회



회장 이광석 목사
순복음 송리교회



회계 신동민 목사
시온영광교회

서울북부지방회



회장 김수자 목사
회복의교회



총무 강인구 목사
행복한우리교회



서기 김성필 목사
하늘부흥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김영국 목사
구로일민교회



총무 이훈관 목사
순복음 신나는교회



재무 신은수 목사
반석교회



회계 김용실 목사
관동교회

서울강남지방회



회장 김종철 목사
침사람교회



부회장 정동기 목사
순복음 가락교회



총무 오성현 목사
은혜교회



서기 이현옥 목사
순복음 사랑교회



재무 회계 박영규 목사
말씀과 사랑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김덕영 목사
신리교회



부회장 박정자 목사
성호교회



총무 서기 이기성 목사
함께꿈꾸는교회



회계 박문예 목사
임마누엘교회

경기지방회



회장 임영철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부회장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총무 최은규 목사
순복음 천한목자교회



서기 김병호 목사
순복음 행복교회



재무 진희재 목사
열린목회교회



회장 최철민 목사
순복음 초새교회



부회장 임종현 목사
순복음 새일교회



총무 이복길 목사
임지순복음교회



서기 유두환 목사
호평순복음교회



재무 신준철 목사
순복음 예수성령교회



회계 유석근 목사
에버다순복음교회

경기남부지방회



회장 김남수 목사
부흥교회



부회장 김기인 목사
분암순복음교회



부회장 김남순 목사
율곡순복음교회



총무 박종철 목사
오성사관교회



서기 김효신 목사
순복음 장안교회



재무 최정호 목사
순복음 감동교회



회계 정미자 목사
섬교회



회장 이석호 목사
대구순복음교회



부회장 최우현 목사
안산순복음교회



총무 이도환 목사
진천순복음교회



서기 김용희 목사
안산순복음교회



재무 이태준 목사
인촌순복음교회



회계 유정민 목사
일산순복음교회

안산시흥지방회



회장 김영학 목사
성령나루교회



총무 김명호 목사
순복음 영성교회



서기 오진부 목사
순복음 성원교회



재무 임현상 목사
복음의 동산교회



회계 오정순 목사
순복음 주성교회



회장 김장수 목사
예수교회



부회장 박정신 목사
은성교회



총무 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서기 오세준 목사
순복음 참동교회

용인지방회



회장 강희문 목사
은혜의소망교회



부회장 김인희 목사
순복음 성광교회



총무 지명호 목사
새생명교회



회계 김동일 목사
성령나루교회

일산지방회



회장 서영조 목사
서일산교회



부회장 서기 박미자 목사
빛과사망교회



총무 조영란 목사
일산별빛교회



재무 회계 이진우 목사
주안교회



회장 정해관 목사
김포성광교회



총무 정영호 목사
마침내복음교회



서기 최준남 목사
김포순복음교회



재무 이태재 목사
서삼순복음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심현일 목사
임마누엘순복음교회



부회장 홍일국 목사
은혜의 사랑교회



총무 이경호 목사
인천국제순복음교회



서기 송준호 목사
순복음 사랑교회



회계 김지영 목사
세상의 순복음교회

강원도지방회



회장 유종필 목사
일민교회



총무 진창일 목사
성자순복음교회



서기 최정희 목사
성령교회



회장 박성우 목사
평안교회



부회장 최순수 목사
순복음 소망교회



총무 김중배 목사
군영순복음교회



회계 정희자 목사
바울교회

대전지방회



회장 정문희 목사
대전우리교회



총무 이비순 목사
한소망교회



서기 석인권 목사
군인교회

충서지방회



회장 지홍식 목사
이산순복음교회



부회장 안종규 목사
한사랑교회



총무 김영관 목사
순복음 은혜교회



서기 회계 이인복 목사
송곡교회



재무 오수경 목사
순복음 장자교회



회장 이종만 목사
세종순복음교회



부회장 소영진 목사
신부순복음교회



총무 진홍식 목사
순복음 성기교회



서기 김순구 목사
사랑이 넘치는교회



재무 임금자 목사
부활교회



회계 노우석 목사
평안교회

청주지방회



회장 정의섭 목사
한소망교회



부회장 노부철 목사
산성순복음교회



총무 김상훈 목사
청주성민교회

충주지방회



회장 윤병하 목사
한우리교회



총무 박기선 목사
광혜원침례교회



서기 진영배 목사
성곡순복음교회



회장 이범구 목사
순복음 새생명교회



회계 김장수 목사
부강순복음교회



부회장 최동순 목사
삼산순복음교회



총무 오병호 목사
순복음 아산교회



서기 김용 목사
새희망교회



재무 김경준 목사
후암순복음교회



회계 신병호 목사
청주주사리교회

경남지방회



회장 권우석 목사
창원순복음교회



부회장 황원연 목사
은혜의 장막교회



총무 류자석 목사
순복음 사랑교회



서기 윤상수 목사
신두순복음교회



재무 신동철 목사
김해순복음교회



회계 최성진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회장 오경덕 목사
순복음 한마음교회



부회장 이상석 목사
삼일교회



총무 권점식 목사
순복음 불루른교회



서기 신홍섭 목사
한일교회



재무 김은수 목사
순복음 결실교회



회계 유복주 목사
순복음 복음교회

대구경북지방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길교회



총무 정진학 목사
태전사관교회



서기 김명희 목사
임마누엘교회



재무 윤철호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회계 정동진 목사
순복음 여정교회

부산지방회



회장 한병철 목사
은혜의 평화교회



부회장 신복희 목사
순복음 화평교회



총무 조영희 목사
순복음 주남교회



재무 김경호 목사
순복음 아람교회



회계 김태주 목사
부산우리교회

광주지방회



회장 김양민 목사
목장교회



부회장 장영기 목사
순복음 행복교회



총무 서기 최정서 목사
순복음 복원교회



재무 회계 조은주 목사
순복음 참동교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전북지방회

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총무 김삼순 목사
성광순복음교회서기 김희수 목사
은혜사랑순복음교회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

전라지방회

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

전라지방회

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

제주지방회

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회장 최병선 목사
익산은혜와신리교회

충청남도지방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1)



송년회 및 정기월례회,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임영광 목사)는 지난 14일(월) 오전 11시 순복음미전교회(담임 안재봉 목사)에서 지방회소속 전교역자와 사모들이 함께 모여 송년회 및 12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정광호 목사(동문순복음교회)의 기도, 지방회 서기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성경봉독(행9:10-19), 증경회장 김종연 목사(의정부은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종연牧사는 행 9:10-19 말씀을 본문으로 ‘중군이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목회자가 원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라고 전제하고 “하나님이여 저희를 위하여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둘째 순종하며, 셋째 담대한 신실한 종으로 복음중심, 말씀중심의 제



자를 양육한다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목회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당부하며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 회원의 교회와 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했으며, 지방회 재무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헌금기도, 총무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의 광고에 이어 증경회장 김종연 목사(의정부은혜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는 지방회장 임영광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임하석 목사(주성교회)의 기도 후 서기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회원점명에 이어 각부 보고를 받고, 회무처리에 들어가 바자회로 얻은 수익금은 선교비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증경회장 김홍광 목사(주내순복음교회)의 폐회기도로 모든 회의를 마무리했다.

3부 교제시간에는 순복음미전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으로 식사를 하고 회원단합과 전교를 위한 책사대회를 갖는 등 회원 간 교제를 나누며 은혜 가운데 월례회를 마쳤다.

정기지방회, 일본 복음화 위한 간담회도

일본지방회

교단 선교국(국장 서정복 목사)에서는 지난 11월 30일(월) 오후 3시 일본 순복음사바에교회(담임 염순복 목사)에서 일본지방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일본복음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최남도 목사의 사회, 염순복 목사의 대표기도,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을 12:1-12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봅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큰 복을 받아 누렸던 신앙의 선진들처럼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회원들은 회소에 의해 정기지방회를 열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으며 임원선출, 사업계획 수립 등 각종 업무를 확정했다. 회원들은 함께 식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일본복음화를 위한 간담회 후 온전복을 하며 피로를 풀었다.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는 다음날 동경으로 이동해 최남도 목사가 시무하는 하카리복음교회에서 수요예배를 인도하고 귀국했다. 2016년도 새 회기인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염순복 목사 부회장 겸 총무 박장만 목사 회계 최남도 목사 서기 이병영 목사 감사 김양희 목사

송년기도회, 교단과 지방회 위해 기도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이충만 목사) 송년기도회가 지난 15일(화) 오전 11시 조치원평강순복음교회(김여호수 목사)에서 지방회 소속 전 교역자와 사모들이 함께 모여 개최했다.

이날 송년기도회는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성기는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기 김순구 목사(사랑이넘치는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가 뱀 33:1-3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의 위력을 아십니까?’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회장 이충만 목사(세



종순복음교회)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단과 지방회를 위하여, 교회부흥과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이어 회계 노우석 목사(평안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류승창 목사(순복음여울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헌

금은 지방회 두 교회를 선정하여 후원금으로 전달하였다.

2부 교제 시간에는 조치원평강순복음교회에서 선물(상품권)과 맛있는 한식뷔페를 제공하여 즐거운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차별금지법·WCC반대, 동성애·좌파 퇴치위해 기도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
2015년 송년기도의 밤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법성 목사)는 지난 14~15일 여주 성산기도원(기도원장 문재선 목사)에서 2015년 한 기보 송년기도의 밤이라는 제목의 기도회를 가졌다.

개회예배는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한예수교오순절성회 총회장 정명구 목사가 대표기도를 하였고, 여주 연합총회 총무 고광원 목사의 성경봉독 후,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가 기도의 능력(이사야38:15-17)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대한자유교회총회 총무 박수일 목사의 헌금기도 후, 상임고문 지영철 목사가 참석하신 회원들에게 인사말씀을 하고 사



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광고 후, 상임고문 지영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기도회는 밤8시에 여주 성산성회 총회장 민정식 목사의 사회로 특별기도회를 시작하였다.

기도회는 ①나라와 민족(경제, 청년일자리), 평화통일을 위하여-여주 성산성회 증경총회장 박정신 목사, ②(사)한기보와 회원교단, 단체를 위하여-여주 호연총회 총회장 한홍교 목사, ③차별금지법, WCC반대, 동성애,

좌파 퇴치를 위하여-여주 합동제일총회 총회장 신한철 목사, ④IS 및 테러조직퇴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 이단퇴치를 위하여-여주 개혁신회 증경총회장 이규상 목사, ⑤한국교계와 선교, 성산기도원을 위하여-협의회 서기 이상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되어 열정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기도 순서가 끝난 후, 마지막 으로 협의회 증경대표회장 남성운 목사의 축도로 송년 기도회의 일정을 마쳤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새 가족 모집 및 자비량 부흥성회
신·청·안·내회장
신재영 목사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영적혼란의 시대에 뜨거운 사명감으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고한 진리를 말씀을 힘 있게 선포하며 이 땅의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신앙회복 및 우리교단의 부흥 더 나아가 세계선교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흥사회 임원으로 활동하실 분과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부흥사회로서의 자질과 사명은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해서 활동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 연수 후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기도로 준비된 부흥사

들을 중심으로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성도와 교역자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성령충만하고 행복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온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계속 이어져나갑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성도들의 신앙회복에 도움을 주어 함께 성령행진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준비한 자비량 부흥성회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와 목회자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어 감동과 열정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자비량 부흥성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명 미만의 도시 미자립교회 및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자비량 부흥성회 신청을 기다립니다.

문의 : 회 장 신재영 목사 010-4420-8650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010-3698-5764

‘교회 제모습찾기 총력’, 종교다원주의 타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제11회 정기총회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제11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일(목) 오전 11시 전쟁기념관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한국 교회의 제모습을 찾고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세워져 가는 사랑의 백성이 되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이 협의기관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들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상임회장 오세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우정은 목사의 대표기도, 상임회장 전승용 목사의 성경봉독, 복음가수 송시라 집사의 특별찬양,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고후 10:12-18 말씀을 본문으로 '내일의 지평을 넓혀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 지도자가 탐욕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올바르 서서 세상과 사회를 계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오직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회계 강진명 목사의 헌금기도,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예총연과 소속총회 단체 교회를 위해' 남상봉 목사, 신성수 목사, 김경호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해서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취임패와 신임총회장에 대한 축하패가 수여되었다.

이날 예배는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의 광고, 이사 조성은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끝으로 이어진 정기총회는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주제로 회원점명, 개회선언, 연혁보고, 행사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등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인사위원회에 의한 임원선출에서는 대표회장에 유영섭 목사를 유임하기로 하고 일부 임원진을 개선했다.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는 한국교회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국교회 제모습찾기 사역을 전개하고, 보수신앙을 견지하며 종교다원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

원의 복음전파와 동성애 입법 저지 등 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대진하고 있다.

이날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이순주 목사,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장 남윤국 목사, 신학협의회장 강용희 목사, 상임회장 오세택 목사 외,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 서기 김제환 목사, 회계 강진명 목사, 감사 연엘리사 목사, 전지희 목사 상임총무 홍종철 목사 총무 남상봉 목사 외,

전국장애인합창대회, 화음으로 희망 전해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최공열)는 장애인합창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전국장애인인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국장애인합창대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특히 금년은 세계 장애인의 날 23주년을 맞아 용인에서 오랜 시간 함께 노력한 결실을 맺는 장이 펼쳐졌다.

전국의 장애인합창팀 중 6개의 지역예선과 10개

지역의 동영상 심사를 거친 전국 13지역, 16개 팀과 봉사자와 관람객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린 전국장애인합창대회는 지정곡, 자유곡 각 1곡으로 경연이 이루어졌다.

제23회 세계장애인인의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영예의 대상 합창팀은 '오해파데이', '아리랑'을 부른 서울에벤에셀합창단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푸른

열매' '아리랑'을 부른 대전과온여성장애인합창단, 은상은 서울푸른나래합창단, 동상은 제주장애인어울림파앗합창단이 각각 수상했다.

용인시시장 특별상은 '넌할수있어'와 '아리랑'을 부른 상주상회꽃꽃합창단이 수상했다.

제23회 세계장애인인의날 기념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 참여한 16개 장애인합창단은 자기고정의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무대에 올랐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해 주었다.

연신원, 총동문회 발전 위한 정책포럼

교회에 필요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등 강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연바울 목사)는 지난날 27일 오전 11시 중흥교회에서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서기 한상용 목사의 사회로 수석부회

장 설동욱 목사의 대표기도, 직전회장 배진구 목사의 고전 4: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총상'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계속해 실무부회장 정상업 목사의 대한민국을 위해, 서기 이화평 목사의

'한국교회를 위해', 실무부회장 하인자 목사의 '현세 대학교를 위해', 실무부회장 이금옥 목사의 연신원 총동문회를 위해' 기도한 후, 배진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세미나는 '정보통신과 교회발전'이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필요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내용이 진행됐다.

마지막 정책포럼 시간에는 여성목회자의 목회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한 토의시간도 가졌다.

글로벌선진학교-담강고, MOU 체결

학습의 장 공유해 성장방안 모색 및 협력기틀 마련

글로벌선진학교가 학생들의 언어, 문화, 교육, 체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기회 제공을 위하여 각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학교를 발굴, 협력하고자 학교 간 교류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글로벌선진학교는 지난 3일(목) 본점캠퍼스에서 대만의 담강고등학교(私立淡江高級中學)와 자매결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촬영지로 유명하기도 한 담강고등학교는 1872년 캐나다 선교사 맥케이(Mackay)가 설립하여, 1914년에 정식으로 허가받았으며 지금까지 오랜 전통을 가지고 대만 전 총통 이登輝, 주경륜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대만의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3,000여 명의 재학생과 2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있으며 대만기독교장로교회의 교육기구나다. 담강고등학교는 정규반 이외에도 음악반, 미술반, 광고디자인반, 유아보육반, 컴퓨터정보와 상업경영반 영어반, 일어반 등이 있고 스포츠팀으로는 테니스축구팀이 있다.

글로벌선진학교는 이번 담강고등학교와의 MOU를 통해 양교간의 학습의 장을 공유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며 상호우호 및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더 크게 크리스천으로서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날 MOU 체결식과 함께 본점캠퍼스 채플시간에는 담강고등학교 이사장인 鄭國展(영국전) 목사의 설교가 있었으며, 글로벌선진학교 태원도 사법단 공연 및 성가대의 합창으로 양교의 MOU 체결을 축하했다.

어린이부흥사 박연훈 목사, 어캠캠프 개최

제35회 성가대 지휘자 단기대학도 개최

어린이 전도로 새로운 사역에 심취해 있는 박연훈 목사는 이 풍성한 교육목회 환경을 소개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도체험을 가지게 하는 '어린이 은혜캠프'를 어김없이 개최한다. 이번 겨울캠프의 주제는 학교 앞 전도 현장을 그대로 옮긴 '전도, 다시 시작하라' (창하 7:9)이다.

경남지역은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1.18~20, 서울은 양행, 한화리조트에서 1.21~23, 222~24, 충청지역은 삼정부여유스호텔에서 1.25~27, 호남지역은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2.1~3까지 각각 2박 3일씩 개최되며, 작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무료초청 어린이캠프는 충청 지역과 제주지역에서 개최된다.

충청지역은 1.28~29, 제주지역은 2.29~3.1 이기풍선교기립관에서 열리는데 장년 20명, 어린이 20명 미만의 교회는 모두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http://cgi.or.kr/010-2985-3060, 010-9090-7750)

한편 박연훈 목사가 학장으로 있는 프레이즈예술선학교가 교회성가대의 성장과 예배 회복을 위한 '제34기 성가대지휘자단기대학'을 개강한다.

이 과정은 악보를 볼 줄 몰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초·중급반 과정으로 벌써 21번째 개강하는 명품 과정으로 2개월 집중 코스이다. 주간과 야간으로 반구성이 되어 있어 교차 수강이 가능하기도 한 이번 과정에 지휘를 맡은 많은 분들의 기회이다.

수강 장소로는 교통편이 편한 상도동에 위치한 행복한가정연구원으로 7호선 송실대입구역에서 가까운 곳이다.



이번 단기대학은 주간반은 1월 11일(월) 오전 10:30~오후 3:00에 수강할 수 있으며, 야간반은 1월 11일(월요일 화요일)부터 2월 29일까지 살기위주의 교육으로 실전에 적용할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핵심 주제와 주요강사는 서울반과 광주반으로 나뉘는데 서울 찬양원은 국내 1호 음악목사이며 찬양인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박연훈 목사, 기초 악보 읽기, 호흡법과 발성법은 이진원 교수(이태리필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장, MBC장작가곡제 금상 수상), 하수연 교수(독일 쾰른 국립음대 석사, 노랑진교회 성가대지휘), 지휘에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여 국립합창단 부지휘자인 백경화 교수, 오케스트라지휘법은 수원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이며 왕성교회 지휘자인 최세훈 교수가 맡는다. 광주반은 변욱 교수와 유웅장 교수, 박연훈 목사가 살기위주의 강의를 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010-2373-5291 신청은 www.praiseac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총회신학교·목대원·신대원 졸업예배

(총회신학교 제5회, 총회목회대학원 제8회, 총회신학대학원 제5회)



2015학년도 졸업식 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총회신학교·목대원·신대원 학사일정에 따라 2016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함께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6년 1월 11일(월) 오후 2시
- 장 소: 총회본부 5층 대강당
- 참석대상: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대상자
- 참 고: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오전 9시까지 도착(예행 연습)
2)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회신학교·목대원·신대원

‘1004명 시각장애인에게 새 생명의 빛을’

CTS 특집 생방송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지난 17일(목) 오후 2시부터 노랑진 CTS 스튜디오와 코엑스 특설무대를 잇는 이원 생방송 <1004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새 생명의 빛을> 특집 방송을 실시했다.

<1004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새 생명의 빛을>은 과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만큼, 시각 장애인에 대한 관심 환기를 비롯해 수술지원 등의 활동으로 이어져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호응을 받으며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의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특별히, 두 시간 동안 펼쳐질 이번 특집 모금방송은 과거와 동일하게 시각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4명의 시각장애인들의 개인수술을 지원함은 물론이며 CTS 스튜디오와 코엑스 특설무대를 이원 생중계했다.

스튜디오에서는 김상복 목사와 신은경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실로암안과병원 김선대 원장, 대구대 재활 의학과 조성재 교수, 팔런트 한인수 장로, 개그우먼 정지민 지매 등 출연자들과 함께 시각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나눴다. 또한 실로암복지재단을 통해 개인수술을 받은 김부경 목사가 출연하여 개인수술 후 달라진 삶에



대한 간증을 펼쳐 시청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 코엑스 1층 광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하여 개그맨 고명환, 아나운서 우혜진의 진행으로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관현맹인국악단과 조이플 중창단의 특별 무대와 가수 자두, 박지현, 노아노래하는 아이들, CTS 어린이 합창단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위로 공연이 펼쳐졌다.

더불어,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점자책과 지팡이, 각종 음성안내 제품, 촉각교구, 촉지도 등을 전시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었다.

‘평화통일을 위한 원로목사 특별기도회’

영월 한반도지형 전망대서 뜨겁게 기도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이사장 임원순 목사, 대표회장 이주태 장로)는 지난 1일 원로목사·사모 40여 명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을 방문, ‘분단(分斷) 70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원로목사 특별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한반도교회와 한반도지형전망대에서 차례로 기도했다.

한반도교회에서 거행된 1차 기도회는 김진옥 목사(상임회장)의 사회, 한은수 감독(총재)의 설교, 강만원·김영백·조석규 목사의 특별기도, 이상도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한은수 감독은 ‘기도자의 고뇌’(수 7:7-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으로 인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원로목사들의 기도회가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기도행진의 출발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지형전망대에서 거행된 2차 기도회에서 평균 연령 80세인 원로목회자들은 먼저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한 죄부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휴전선이 속히 무너지고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해 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기도 후 모두 태극기를 들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남북통일”을 외쳤다. 이밖에도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을 위한 원로목회자들의 그림 그리기 행사’도 열렸다.

상임회장 김진옥 목사는 “분단 당시에는 남과 북이 이렇게 오랜 시간 분단된 채로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준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태 장로(대표회장)는 “원로목사님들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전국 가는 그 날까지 한국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신다. 저는 원로목사님들이 기도생활을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엽 시인과 함께 이웃돕기연탄나눔 ‘시극’

“연탄 한 장으로 어려운 이웃의 얼은 마음 녹여”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제2회 송년문화예술연합 콘서트인 ‘시극 나눔콘서트’가 지난 6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극 나눔콘서트는 김소엽 시인과 함께 한 기

교고 이웃돕기 연탄나눔 시극으로 시인·음악가 등 문화분야예술인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소엽 시인은 행사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연탄 한 장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얼은 마음을 녹여주고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는 장애인 우쿨렐레공연단의 연주를 시작으로 신재창 가수의 즐거운 노래, 김소엽 시인의 애곡시 ‘독도에서 살리라 살으리랴다’ 낭송, 중견시인들의 시극, 한복패션쇼, 작은평화예술단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들어온 수익금과 후원금은 모두 연탄나눔 행사에 사용된다.

월드비전, 유준상 홍보대사와 함께 ‘해피앤딩’ 캠페인

‘난민 어린이들의 따뜻한 내일을 위하여’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 www.worldvision.or.kr)은 지난 13일(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추운 계절 속 난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해피앤딩(Happy ANDing)’ 캠페인을 개최했다.

‘월드비전 해피앤딩’은 끝(Ending)이 아닌 함께(And)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이번 캠페인은 연말을 맞아 ‘난민 어린이들의 따뜻한 내일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별한 추위를 길 위에서 견뎌야만 하는 200만 명 시리아 어린이들을 비롯한 긴급구호 현장의 난민 어린이 지원에 위한 것이다.

이 날 캠페인 현장에는 내게 있는 것을 한 조각 나누는다는 의미를 가진 9m x 3m의 대형 팝업 카드 형태의 ‘해피앤딩 케이크’ 트리가 설치됐다. 배우 유준상 월드비전 홍보대사와 롯데월드몰 아트리움 현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어린이들은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난민의 ‘해피앤딩’ 조각케이크 카드를 직접

색칠하고 따뜻한 메시지를 적어 ‘월드비전 해피앤딩 케이크’ 트리를 완성시켰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최근 월드비전과 함께 우간다 카리모자 지역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의 현실과 아픔에 공감하고 돌아온 유준상 홍보대사가 함께했다.

연기뿐 아니라 그림에도 재능이 있는 유준상이 직접 그린 ‘해피앤딩 카드’는 캠페인 현장 구매 및 인터넷 온라인몰(www.10x10.com)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긴급구호 현장의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유준상 월드비전 홍보대사는 “현장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제대로 된 옷과 신발이 없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길 위에서 추위를 견뎌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가장 추운 계절 가장 외로운 곳에 있



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한상호 신규마케팅본부장은 “올해 슈퍼 앤노이가 환함과 폭설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니 난민들에게는 더 춥고 긴 겨울이 예상된다. 1만원이면 시리아의 난민 가족들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따뜻한 담요를 전할 수 있다”며 “긴급구호 현장의 어린이들이 모두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게 적극 동참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전도의 열매

저는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하며 전주 베드로교회를 섬기는 교육전도사 배요셉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집회로 열렸던 가족세트전도세미나를 통해 박영수 목사의 전도강의와 전도현장에서 느낀 임상체험들을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전도집회로 가졌던 전통적인 전도와 제가 신학교에서 따로 훈련받고 있는 전도폭발 등을 통하여 전도에 대한 중요성과 그 방법들을 부족하나마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족세트전도를 통한 박영수 목사의 전도광범법은 새로운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전통적인 전도나 전도폭발을 통한 전도방법도 영혼구원을 향한 열정은 역시 같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전도는 전도 프로그램이라고 보단 전도를 통한 ‘간증 세미나’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폭발법도 전도자 자신이 직접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분량의 암기 책자와 더불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영수 목사의 세트전도는 스피드가 달랐습니다. 상대방의 거부나 전도자의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곧 바로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기도와 함께 현관에 붙여주는 축복패는 단순한 교패를 상징하는 것

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문설주에 바른 피의 치원에서 전도한 기적이, 사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다는 의미로서 영접기도와 점목시켰을 때, 이는 단순한 전도차원 뿐만 아니라, 영적차원에서도 마귀의 권세로부터 묶여 있던 불신 영혼을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단번에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트전도에서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님 사역과 이 전도가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애 기간동안 수 없이 많은 개인과 가정, 지방에 그분의 자취를 남기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에 힘입어서’ ‘곧’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와 그 자리에서 믿음을 확신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수 목사가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전도인 세트전도법이 전도현장에서 순간 스피드가 색안경을 끼고 보았을 때 대충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역처럼 영접기도로 예수이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뤄졌기에 앞으로라도 이 전도가 이 시대 진정한 전도부흥을 일으키는 불길의 향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베드로교회/ 배요셉 / 교육전도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생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진등용**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 041)545-4540, 010-7406-4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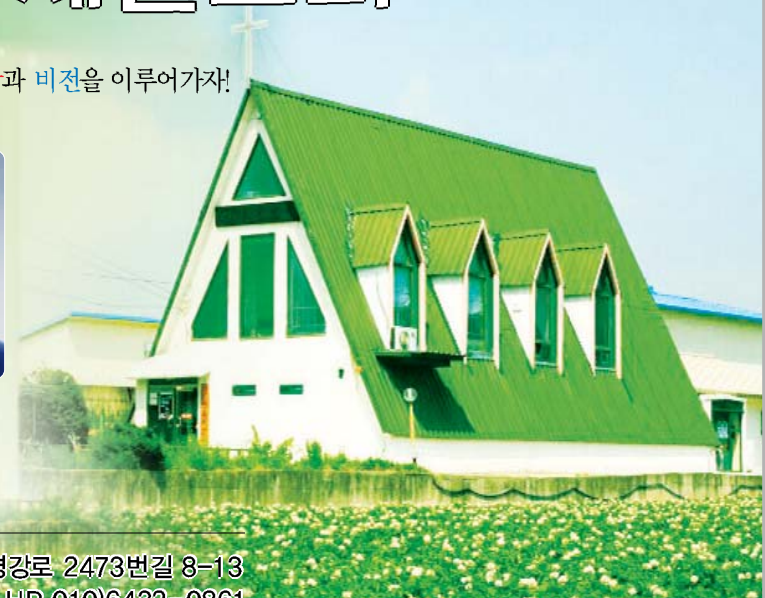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영동제일교회

표어 : 우리의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가자!



담임목사 **김용덕**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473번길 3-13
033)652-1881 HP 010)6432-086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신교회

기도하는 무릎, 순종하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



담임목사 **김인찬**



주일 예배 • 1부 07:00 • 2부 09:00
• 3부 11:00 • 4부 19: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380번길 16
T.043)234 - 184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거제중앙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왕상 3:10)



담임목사 **김창영**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2시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새벽예배 • 오전 4시 30분

경남 거제시 둔덕면 거제남서로 4604 ☎055)633-5039, 070-4107-5039
카페: <http://cafe.daum.net/fggcac>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가평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조남영**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가평순복음교회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새말오토 6번길 3 Tel 031-582-2835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목양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양인**



주일예배 • 1부 : 오전 9시 • 2부 : 오전 11시 • 3부 :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062-973-0857, 010-3822-4667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강의를

양병희 목사 // 한국교회연합 직전대표회장,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대표회장, 영안교회 담임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①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임에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현실은 생각할수록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단은 국한의 대립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민족의 이질성을 고착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책무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일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우선순위에 밀려나있고, 거친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같이 추상적이고 구호적인 거대담론이 중심에 있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홍정길 목사도 "통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통일이 어서 오게 해 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실제 통일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하지 않는다. 교회가 북한을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II. 독일통일과 교회의 역할

지난 3일은 독일통일이 25주년 되는 날이었다. 1989년 11월 9일 독일 분단의 상징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독일통일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정치·외교·경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려움이 상존했지만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다.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동·서독의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동독교회는 사회주의 동독사회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서독교회도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동독교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독일교회는 민간분야에서 동·서독 간의 가교 역할도 감당했다. 서독의 각 교회는 동독의 각 교회와 자매결연을 했고, 화해와 협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는 철저히 도왔다.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현금과 현물을 지불하고 정치범 등을 송환한 방식으로 성공적인 프라이카우프의 전제조건은 조용한 거래다.

서독은 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89년까지 3만3755명의 정치범을 동독에서 빼내는 데가로 34억 도이치마르크(약 15억 달러 추산)를 지불했다. 이때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동·서독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이 물밑접촉을 활발히 벌였다.

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작업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을 위한 순수한 작업이었다.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동·서독교회의 교류와 협력은 양쪽 정부의 개입과 금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냉전으로 동독과 서독 체제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이 이질화되었지만 교회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감하며 통일을 준비했다.

한반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북한은 남한과 언어만 같을 뿐이지 문화와 생활습관, 세계관과 종교관까지 우리와 전혀 다르다.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뜻 다가설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화해를 위한 교류·협력과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적절한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탄절

성탄절이 오면 전 세계는 휘황찬란한 별빛 장식으로 치장하고 십자가 없는 성탄절을 즐기려만 여념이 없다.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인은 나무 가지마다 치장된 네온사인엔 현혹되기 보다는 내 영혼에 뚜렷이 그려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거룩한 기쁨 속에서 도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히 희생과 봉사의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징조들은 도처에서 경고의 나팔소리처럼 들려오고 있다. 처처에 난리 소문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죽음과 병고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5백여 명을 한꺼번에 살상한 11.13 파리 테러를 비롯, IS 무리들의 잔인무도한 살인, 테러 행위와 참상은 세계 도처에서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폭압자와 전쟁광들의 핵무기 위협도 끊이지 않는다. 언제 불장난을 저지르지 못할 위협은 바로 우리의 머리끝인 저 북극 땅에서 오늘 도 저질러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도 홍수와 가뭄을 엿길리게 안겨 주며 인류의 종말적 고통을 시사각각 더해 가고 있다. 12.12 파리에서 폐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95개 참가국이 만장일치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지구 기온의 상승 폭을 오는 2100년을 기준으로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도까

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종말위기에 대한 지구촌 비상종회인 셈이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사용과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주 원인이 되어 극지의 빙하가 녹아내려 전 지구적 해수면 높이가 지난 100년 간 23cm 상승했다. 향후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1℃ 오를 경우 북극바다의 얼음이 영위하 사라지고 지구상 5천 만명이 추가로 물 부족을 맞게 되며 세계 10%의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한다고 한다.

만일 2℃가 높아지면 50여 명이 굶어 죽게 되고 33%의 생물이 멸종되며, 3℃ 높아지면 최대 50%의 생물이 멸종 가능성이 생긴다고 기상기구는 경고한다. 지구 온난화는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맞이하게 된다는 말이다.

지금 저 남태평양의 휴양지 몰디브가 수몰위기로 비상대박에 들어갔고, 인구 1만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나라 투발루(Tuvalu) 국은 해수면이 높아져 세계최초로 환경희생국이 되었다. 2001년 국토유지포기선언을 했고 수도가 물에 잠겨 이전한 상태이다. 조용히 지구상에 사라져 가고 있지만 호주 등 인근 국가에 이민을 요청했으나 세계 어느 나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곳이나오지 않는 말세의 인정세태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22:20)했다. 언제 오실지 성탄의 기쁨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이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천비람이 살을 에는 이 시간에도 반인륜적 인권 탄압이 지행되고 있는 저 북한 땅을 탈출한 자유민들은 바로 출애굽 한 오늘노예들과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돌보아야 할 최우선의 객들이다. 그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체포해서 다시 폭압자의 손으로 넘겨주는 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탈북 동포들을 붙잡아 북한에 다시 넘겨주는 자들에게 국기를 불태우고 '내 백성을 보내고 해방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 인권관련 국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근래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10월 베트남에서 체포되어 중국에 인도된 탈북자 9명이 강제복송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후 이들은 행방이 묘연하며 뉴스에

서 사라졌다.

성탄절도 연말연시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형제 동포들이 죽음에 처한 이상 한시도 기도를 게을리 할 수가 없다. HRW 측은 "이들 9명의 망명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고문·폭력 및 영양 결핍으로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아무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난민 9명의 가족이 11월 하순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일행은 중국-북한 국경에 인접한 길림성 도문시에 억류되어 있었다. 지금쯤 이미 복송된 건 아닌가?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 송환되는 사람들은 무서운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되어 극한 상황의 확대를 받게 된다. 중국은 유엔 난민규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동포들은 한협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중국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초대시

예광 정성연 // 서예가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역임 / 현대미술학 연구가 / 한국원로서화가 한국대표작가 / 미국 매릴랜드 초대전('98) / 미국 한국대사관 초대전('98) / 문인화 여행 外 13중 서화교본 발행 / 한국민족문학상 수상('06) / 정도 육백년 자랑스런시민상('94) / 기독교문화예술대상('07) / 도전 한국인상 대상 수상 / 대한민국의화예술포럼(국회) / 1998년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우수상 / 1988년 KBS 전국휘호대회 금상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제4대 서울서예가협회 회장 역임

날마다 성탄일처럼

성탄일은 하루라고 많은이가 생각하네
유년시절 돌아가면 설레이던 그때에는
예수님의 오신날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새벽송을 돌던날이 육십년전 일이로세

성인지나 노년되니 살과같이 빠른세월
일년중에 단하루만 성탄일로 여기나니
아쉽지가 아니한가 너무짧지 아니한가
삼백예순 다섯날을 성탄절로 여기세나

아기예수 오신날을 환영하고 기뻐하세
좋은날을 연장함은 어찌아니 기쁘리요
하루만을 지정말고 순간마다 매일마다
성탄기쁨 누린다면 주님께서 기쁘시리

행복한꿈 누리는일 마음먹기 달렸나니
구원의날 기쁨누려 항상기뻐 마음잔치
모든날에 감사함이 지혜로운 일이려니
쉬지말고 기도하며 주님영접 해보세나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2016년 신년하례 및 (사)예장연 임원·신임 교단장 취임예배



이광용 목사 이성현 목사 이강익 목사 김광호 목사 김승자 목사



차득환 목사 박영성 목사 장승우 목사 손대영 목사 오선미 목사

- (사)예장연 임원 -

고문 김원식 육옥수 김기형 예영수 송현 이원일

대표회장 이광용

상임회장 이성현 이강익 김광호 김승자 차득환 박영성 장승우

자문위원 최창일 이태주 조요한 황근옥 변권은 오종산 박요한
이원호 김장성 서재복

지도위원 고종권 김병선 김용현 한순용 서성현 유연식 하석수
안병삼 김남식 황대영 임은선

총무 이명승 김광재 강기봉 오준호 차요한 이민모

서기 손대영 부서기 정찬희

회계 오선미 부회계 김마리

감사 김태지 정태래

제17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2016년 신년하례 및 제17회 대표회장, 고문, 상임회장, 자문위원, 지도위원, 임원 및 신임교단장 취임 축하예배를 드립니다.

- 일시: 2016년 1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소: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
서울시 중로구 연지동 1-1
(전화 02-708-3131)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4길 3(원석빌딩 201호) TEL. 02-706-2970-1 FAX. 02-706-299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담임 조용목 목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17)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전화 031)443-3731~2, 446-9184 / 홈페이지 : www.gntc.net

조용목 목사 TV, 라디오 방송설교

조용목 목사의 설교말씀이 기독교TV(CTS)를 통해 방송되는 것을 비롯, 기독교 각 지역방송 등을 통하여 전국 전역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시청(청취)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TV(IPTV) : QOOK TV(KT) 채널 888번

방 송 국		일 시		
국 라 디 오	CTS / 기독교 TV	매주 토요일	오전 11:30~12:00	(30분간)
	CBS TV	매주 수요일	오후 4:30~5:00	(30분간)
	기독교 방송(수도권)	매주 일요일	오후 3:20~3:50	(30분간)
	기독교 대구방송	매주 일	오후 9:35~10:00	(25분간)
	기독교 광주방송	매주 일	오전 11:30 ~ 12:00	(30분간)
	기독교 전북방송	매주 일	오후 7:00~7:30	(30분간)
	기독교 부산방송	매주 일	오후 7:00~7:30	(30분간)
	기독교 청주방송	매주 금요일	오전 5:20~5:30	(10분간)
	기독교 강원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7:00~7:10	(10분간)
	기독교 영동방송	매주 일	오후 7:00~7:30	(30분간)
해 라 디 오 외	KCB 필라 기독교방송(필라델피아 지역)	매주 수요일	오후 2:30~3:00	(30분간)
	미주 기독교방송(뉴욕 지역)	매주 화요일	오후 1:30~2:00	(30분간)
	시카고 기독교방송(시카고 지역)	매주 수요일	오전 6:30~7:00	(30분간)
	Korean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① 일반전화 - 신유의 전화 : ☎ 1570, 사서함 번호 7200번 축복의 전화 : ☎ 1570, 사서함 번호 7201번
② 휴대전화 - 신유의 전화 : ☎ 02-1570, 사서함 번호 7200번 축복의 전화 : ☎ 02-1570, 사서함 번호 7201번

※전국 어디서나 1570 번호대전화 02-1570을 누르신 후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사서함 번호(7200번, 7201번)를 누르시면 신유의 기도,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회장 김상용 목사

“여호와와 기(旗)를
세우라” (출 17:15)



목 표

• 청주를 복음화 하자!

실천사항

- 쉬지말고 기도하자
- 성전을 채우자
- 감사하며 살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주일에배

• 1부 : 오전 7시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2시 • 저녁예배 : 저녁 7시 30분
• 교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185 TEL : (043)279-9900 FAX : (043)279-997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림벧엘교회



담임 정 부 용 목사

말씀과 복음의 증거로
복음화 사역에 앞장서는



주일에배

• 1부 : 오전 5시 • 2부 : 오전 11시
• 3부 : 오후 2시 • 4부 : 오후 7시 30분

홈페이지, www.daelimbethel.org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379
Tel. 02)845-5095, Fax. 02)845-5096